

【 국내금융 뉴스 】

금융권 천암함사고 피해가족에 원스톱 금융지원

-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금번 천암함사고로 사망·실종된 군장병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우선 금융권과 함께 평택시에 소재하는 제2함대사령부내에 ‘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상속인조회부터 보험금신청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기로 함.
 - 현장지원반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험회 직원 4인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4월19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금융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 현장지원반의 지원내용은 사망·실종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신속한 조회, 사망·실종자가 가입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절차 안내 및 지급신청 접수 등이며, 금융회사들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 우선 보험회사는 사망·실종자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임.
 - 은행의 경우에는 사망·실종자의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생활안정과 관련한 자금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함.
 - 카드사는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할 계획임.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사망·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 등을 5일 내외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망·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한국방송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힘.

(천암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원스톱 현장금융지원 실시, 금감원 기획조정국 외 금융협회, 4/19)